

지역 불교회관 건립 잇달아

구미-대전-창원-춘천-인천 등

“신도교육·문화포교 활성화 기대”

구미불교회관이 15일 개원한데 이어 대전, 창원, 춘천, 인천에서도 불교회관이 잇달아 낙성될 예정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신도교육, 지역 불교문화 활성화 및 포교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대전시와 인천시를 포교거점지역으로 정하고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한 백제불교회관이 28일 오후 4시 개원식을 갖는다. 계룡산 갑사주지장곡가 대전지역 포교거점으로 운영하는 백제불교회관은 70평 규모로 대전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위치해 정부종합청사불자회를 비롯해 대불청, 대불련, 어린이지도자회, 법사회 등 각 신도단체가 이곳을 법회 및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또 '백제불교문화대학'을 설립하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인력뱅크'를 구축, '충남·대전 불교환경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지역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현성)는 지난 1월 인천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광)를 구성하고 6월 중에 불교회관 건립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인천시청 앞에 213평의 부지에 3~7층 규모의 불교회관이 건립되면

불교대학 등이 들어서, 신도교육과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창원과 춘천에도 대규모 불교회관이 회향을 앞두고 있다.

천태종 원흥사(주지 우정)는 내달 10일 창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천475평 규모의 매머드 종합불교회관 낙성식을 갖고, 지역포교에 나선다.

4년여만에 완공된 이 종합불교회관의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기도실, 봉사회·청년회·학생회 방, 2층에 불교유치원, 3층에 대·소강당 영세민에(무로예식장으로 개방) 및 요사채, 4층에 대법당이 들어선다.

지난 18일 불교회관 상공식을 거행한 춘천 삼문사(주지 월도가) 50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3년 초 완공할 예정인 불교회관(4층)은 연건평 1200평 규모로, 종무소와 신도단체 사무실 유치원 도서관 소강당 요사채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15일 구미불교회관(4층) 개원식을 가진 구미선산사암연합회(회장 정우도) 구미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신도단체의 법회 및 신도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법사를 위촉하는 등 재가불교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내달 10일 문을 여는 창원 원흥사의 종합불교회관전경.

서울 노인복지센터 운영체 조계종 복지재단 선정

노인복지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운영체로 조계종 복지재단이 선정됐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21일 "서울시로부터 본 재단이 위탁체로 결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이 시설은 앞으로 조계사가 맡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사는 탐골공원과 인사동 그리고 조계사를 잇는 불교문화복지벨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됐으며, 노인복지시설이 없었던 복지재단으로서의 사회복지 선연역을 고무 확보하게 됐다.

탐골공원 인근 종로구 경운동(구 통계청 자리)에 세워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총건평 2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별관으로 건립됐으며 진료실, 공동작업실, 자원봉사실, 체력단련실, 이 미용실, 온돌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재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해 예산내역을 공개했다. 19일 공개한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총액이 2백44억5천여 만원에 이르고, 세출액도 2백44억4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1년 예산 157억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와함께 복지재단은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로부터 구립 미림어린이집을 수탁했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재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해 예산내역을 공개했다. 19일 공개한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총액이 2백44억5천여 만원에 이르고, 세출액도 2백44억4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1년 예산 157억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재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해 예산내역을 공개했다. 19일 공개한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총액이 2백44억5천여 만원에 이르고, 세출액도 2백44억4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1년 예산 157억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한명우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없었다”

통영환경연합, 시장등 고발

통영시가 미륵도시공원(52만평)을 추진하면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통영시장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98년부터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현재 통영환경운동연합 결성을 준비

하고 있는 이들은 통영시가 97년 12월 미륵도시공원을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당시 미륵산 곤도라 및 모노레일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99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1월 26일 조달청 조달관보를 통해 공사입찰공고를 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군중정책 종교 편향’

김태호의원 의정활동 놓고

울산 기독교단체 ‘낙선운동’

김태호 의원이 국회에서 군내 특정종교편향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인연합회(이하 기독교교인연)가 반 기독교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비난성 문건을 유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독교교인연은 지난 15일 울산지회 발기인대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울산 중구 김태호 의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울산기독교교인연합회에 전달했다.

A4용지 5매 분량으로 구성된 문건의 문건에는 김 의원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질의내용, 선도상담백과 재발간과 관련해 문제분석과 주요현황, 대응 및 세부전략 등 12가지의 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한나라당 불자회장인 김태호 의원은 그동안 군중정책이 기독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해왔고, 종교편향 내용을 담은 <군선도책자> 재발간에도 노력했다.

울산기독교교인연합회는 문건의 내용이 사실상 밝혀질 경우 김태호 의원을 향한 방문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4월 15일 울산 동춘체육관에서 열릴 부활절 행사에서 유인물 2만장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지역구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 보좌관 이태호씨는 "국방부의 군중정책이 특정종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군내 종교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편향대책위는 울산사암연합회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김태복장군 사건

신속-공정 판결하라”

대불청등 5개 단체 촉구

대한불교청년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5개 불교단체들이 사법부에 김태복 육군소장 상고심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불교단체들은 20일 포교원 4층 소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김태복 육군소장 개인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시주자의 순수한 보시정신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1년 2개월 동안 상고심 판결을 미루고 있는 사법부는 공정정당하게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국방부장관인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김태복 육군소장사건에 대한 잘못된 조치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과 현 조상태 국방부장관에게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지은 군법당을 불법건축이라고 주장한 육군 황 모 대령과 당시 군검찰관 등 관련자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불교단체들은 한시적으로 '가칭'김태복 육군소장의 공명정당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불교단체모임(이하 불교단체모임)을 빠른 시일 내에 결성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대법원과 관련기관에 대해 면담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도 20일 김태복 육군소장 사건의 담당 주심 1부 박재운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의 객관적이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능엄경 언해본 등

국보급 문화재 밀매

전국의 유명 사찰 등에서 출현 문화재를 밀매해온 전문 밀매단(본보 311호 23면 참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봉원사에서 도난당한 능엄경 언해본과 해인사 중건 발원문 등 국·보물급 수준의 문화재를 다량으로 밀매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문화재는 해당 사찰에서

도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사찰 문화재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능엄경 언해본과 해인사 중건 발원문 등 국보급 문화재를 사들여 처분하려 한 문화재 밀매상 구모(56)씨를 19일 입건하고 이들 문화재를 사러한 대구 모 병원 의사 김모씨 검거에 나서서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과학기술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뼘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통역사 손인국·아보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현

연락을 주시는 문에는 지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생명나눔 연합동아리’ 창립

도와주세요

8개 대학 참여...무의촌 의료봉사 등 추진

서울지역 각 대학생들이 연대한 '생명나눔(Life Share) 연합동아리'가 발족했다. 한양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항공대, 서울산업대, 서경대, 서울여자간호대 등 8개 대학 학생 20여명은 지난 17일 생명나눔실천회 회의실에서 창립모임을 갖고 임원진 선출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이 연합동아리는 지난 2월 만들어진 동국대 '생명나눔동아리'와 함께 대학가의 생명나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장기기증운동 활성화 및 생명나눔실천회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동아리는 이날 회의에서 매월 첫째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고 4월 7일 고아들이 모여 사는 의정부 동

일안국사에서 첫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는 한편 각 학교 축제때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7월에는 무의촌의 로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찾기'에 동아리 홈페이지 'Life Share'를 개설하는 등 대외보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회원수를 늘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합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생명나눔실천회 장기기증 신청자들로 구성되었다.

연합동아리 회장 장현석(동국대) 경찰행정 4년은 "차원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네식구 20만원 한달살이

부모의 경제능력 상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교도수에 수감중인 엄마와 알콜중독으로 생활력이 전혀 없는 아빠를 대신해 지영(18·가명)은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한달 수입은 20여만원. 다니던 학교는 벌써 중퇴했다. 중학교 2년, 초등학교 1년인 두 동생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한달 수입 20만원으로 네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결혼후원이나 도움주실 분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6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북장사 극락보전 법당 중건 모연문

웅장한 산세 힘차게 솟아오른 천주산 길상지에 자리잡은 북장사 극락보전은 여행(呂行) 화상이 현종 원년(1660)에 불사를 시작하여 8년 만에 완공한 법당입니다. 본래의 법당 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부연은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 내부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대세지보살상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속중 2년에 모신 이 불상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 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進王)이 부처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모셨다는 전담 하나무로 조성한 영험스러운 아미타여래좌상입니다.

사바에서 고통받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신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모셔져 있는 극락보전이 비가 새고 허물어져, 산세들은 조석으로 내려보며 울고, 지나는 참배객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따름입니다.

생각건대 법당 없는 부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복전(福田)을 짓지 않고 무슨 불과(佛果)를 얻을 것인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한줌의 흙을 쌓아 태산(泰山)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 정성과 힘을 묶어 극락보전을 다시 세우기로 부처님께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이 법원으로 신도들은 정제(淨財)로서 공덕(功德)을 심을 것이고, 수학자(修學者)들은 복전당(福田堂)을 얻을 것입니다.

청컨대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이여!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을 기울어 이 거룩한 불사(佛事)에 선연(善緣)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3월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4377 북장사



만동불사 및 괘불전건법회안내

극락보전 원만회향을 위해 북장사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보물로 지정된 높이 13m의 북장사 만동불사 및 괘불전 건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공덕 지으시길 양망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고속버스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